



제니스, 유서 깊은 매뉴팩처에서 영감을 받아 로즈 골드 뚜르비옹이 탑재된 DEFY SKYLINE 출시

르 로클, 2025 년 10 월 22 일 – 2022 년 공개된 제니스 DEFY Skyline 은 순식간에 매뉴팩처를 대표하는 현대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대담한 라인과 일체형 구조, 압도적인 기술력을 지닌 시계는 다양한 컴플리케이션과 소재를 활용한 버전으로 재탄생하며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제니스가 타임피스 전체를 눈부신 로즈 골드로 제작한 DEFY Skyline Tourbillon 과 함께 세련된 품격을 상징하는 DEFY Skyline 라인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새로운 작품에 탑재된 딥 브릭 레드 컬러의 다이얼은 르 로클에 위치한 유서 깊은 제니스 매뉴팩처의 적백색 벽돌을 연상시키는 컬러로, 브랜드의 유산과 최첨단 기술이 깃든 시계를 연결해 줍니다.

한층 더 깊어진 현대적인 클래식의 정수

과감하고 견고한 1969 년의 오리지널 DEFY 컬렉션을 계승하는 현대적인 DEFY Skyline 에는 전통적인 유산과 혁신이 균형을 이룬 도시형 타임피스를 추구하는 제니스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각진 기하학적 구조와 강렬한 라인, 실용적인 디자인이 만난 작품은 제니스 매뉴팩처의 핵심 컬렉션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제니스가 DEFY Skyline 을 진귀한 메탈의 따뜻한 색채를 통해 날렵한 라인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로즈 골드 소재의 뚜르비옹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새틴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를 번갈아 적용한 표면은 41mm 케이스의 기하학적 구조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건축적인 디자인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다이얼은 기존 DEFY Skyline 뚜르비옹 버전과 마찬가지로, 6 시 방향 뚜르비옹 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4 개의 포인트를 갖춘 강렬한 별 모양 패턴이 인그레이빙되어 있습니다. 이번 로즈 골드 버전에서 제니스는 르 로클에 위치한 유서 깊은 매뉴팩처의 적백색 벽돌을 연상시키는 딥 브릭 레드 컬러의 다이얼을 선보입니다. 로즈 골드 핸드는 슈퍼 루미노바를 채워 케이스의 고급스러운 컬러와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가독성을 높였고, 로터 역시 골드의 따뜻한 색채가 더해져 시계의 세련된 매력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DEFY Skyline Tourbillon 의 심장부에 자리한 엘 프리메로 3630 오토매틱 고진동 칼리버는 시계에 동력을 전달합니다. 칼리버는 제니스 매뉴팩처에서 전적으로 개발 및 제작을



말아 진동 수 5Hz(36,000VpH) 및 5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무게가 0.25g 에 불과한 뚜르비옹 캐리지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초소형 미니어처를 구현하는 제니스의 놀라운 역량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무브먼트의 구조는 별이 새겨진 기하학적 패턴의 다이얼과 닮아 있습니다. 현대적인 3D 레이저 인그레이빙 기술을 활용하여 표면에 뚜르비옹을 중심으로 선레이 패턴을 이루며 퍼져 나가는 ‘꼬뜨 드 제네브’ 모티프를 새겨 넣음으로써 시계의 심장부로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DEFY Skyline 시리즈 최초로 로터 역시 로즈 골드 소재로 제작됩니다. 별 모양의 오픈워크 형태로 완성되어 칼리버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방해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전은 케이스에서 폴딩 클래스프까지 폭이 좁아지는 일체형 로즈 골드 H-링크 브레이슬릿을 갖추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의 철학에 따라 실용성을 함께 선사하는 새로운 DEFY Skyline 에는 다이얼의 깊은 톤과 잘 어울리는 브릭 레드 러버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두 스트랩 모두 도구가 필요 없는 제니스의 간편한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전세계 제니스 부티크(오프라인 및 온라인)와 일부 공식 판매점에서 독점 판매됩니다.



워치메이킹의 심장, 제니스

1865 년 스위스 르 로클에 설립된 제니스는 개척 정신과 정밀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16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 및 제조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 지속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969 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성과 뛰어난 고진동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니스의 타임피스는 혁신과 뛰어난 장인정신을 향한 매뉴팩처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념합니다. CHRONOMASTER 컬렉션은 고정밀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제니스의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강조하고, DEFY 컬렉션은 기술적 혁신과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PILOT 컬렉션은 모험을 함께할 특별한 동반자로서 제니스가 항공 분야에서 쌓아 온 풍부한 유산을 예찬합니다. 정밀성을 향한 한결같은 열정은 크로노미터 부문에서 기록한 2,333 회의 독보적인 수상 경력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오랜 시간 이어 온 제니스의 탁월한 헤리티지를 한층 강조합니다. 수상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칼리버 135 는 최신 기술 솔루션과 소재의 통합을 통해 현대적인 구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제니스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G.F.J 컬렉션에 칼리버 135 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국해협을 횡단한 루이 블레리오의 역사적인 비행에서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의 기록적인 성층권 자유낙하에 이르기까지, 제니스 시계는 역사를 통틀어 커다란 꿈을 꾸며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개척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처럼 대담한 정신은 제니스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활약하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제니스는 15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보여 온 탁월함, 혁신, 목표를 기념함과 동시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분야의 최전선에 서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1865 년부터 현재까지, 르 로클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제니스는 워치메이킹의 심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DEFY SKYLINE TOURBILLON

레퍼런스: 18.9301.3630/67.1001

핵심 사항: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투르비옹. 투르비옹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별이 새겨진 다이얼 패턴 스크류-인 크라운. 스트랩 교체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30

진동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50시간

기능: 시, 분, 60초마다 한 바퀴 회전하는 «더블 Z» 별 모양의 6시 방향 블랙 투르비옹 캐리지

마감: 표면을 새틴 브러싱 처리한 별 모양의 로즈 골드 오픈워크 로터, 투르비옹부터 퍼져 나가는 3D 레이저 인그레이빙 ‘꼬뜨 드 제네브’ 패턴

가격: 89,900스위스 프랑/97,400유로/93,300달러

소재: 로즈 골드

방수: 10ATM

케이스: 41mm

다이얼: 투르비옹 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4개의 포인트를 갖춘 별 모양 인그레이빙을 장식한 브릭 레드 선레이 패턴 다이얼

아워 마커: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각면 처리한 로즈 골드 핸즈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한 일체형 로즈 골드 H-링크 브레이슬릿. 브릭 레드 러버 스트랩 추가 제공.

두 제품 모두 도구가 필요 없는 제니스의 스트랩 교체 시스템 장착

